

# 익산, 슬러지 건조시설 특혜의혹 수사의뢰

### 지속적인 의혹 제기로 공무원 사기 저하·행정 신뢰도 실추

익산시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 과정에 대한 특혜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지난 17일 사법당국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익산시는 인허가 과정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의원과 일부 언론에서 특혜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행정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 관련 규정과 절차, 주민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약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신공법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허가됐으며, 약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동산동

주민들은 약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오히려 해당 시설 설치를 반기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시의원의 주장에 입각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허가 과정을 철저히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주)평안엔비텍이 최초로 신청한 폐기물처리업 불허처분(2018.3.22.)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 밀집 지역인 동산동의 고질적인 약취 민원과 당시 인근 왕지평야 축사건축 반대 집단민원 사태 등을 감안해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입지조건 등 민원해소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같이 처분했으며 당시 주

민 정서를 고려한 합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어 2차 변경허가는 1차 불허가 주요 원인인 민원을 해소하고 전문가 자문절차 이행과 타 지역 하수슬러지 반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건을 부여하는 등 허가조건을 강화하여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됐고 이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아울러 시가 (주)평안엔비텍이 약취 배출량을 제거할 수 있도록 허가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높이 제한 규정이 없고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사업주 재량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

또한 익산시가 하수슬러지 공급을

전제로 변경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역 하수슬러지는 입찰을 통해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하므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허가 과정에서도 시가 발생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단체 대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일방적인 해석으로 시민들이 오히려거나 소신을 가지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의 사기저하, 지역 이미지 실추, 행정의 신뢰도 추락 등을 고려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앞으로 자제해 달라"며 "절차에 문제가 없는 만큼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이 같은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시 웨스턴라이프호텔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인피니티풀을 개장한다.

##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 인피니티풀 개장

### 10월 31일까지 운영

전북 익산시 웨스턴라이프호텔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인피니티풀을 개장한다.

웨스턴라이프호텔의 4층에 위치한 인피니티풀은 아쿠아바존, 키즈풀존, 인피니티풀존으로 구분되어 있어 쾌적한 물놀이가 가능하며 아쿠아바존은 시원한 물속에서 각종 음료 및 맥주를 즐길 수 있다. 온수풀을 운영하여 물놀이 시설 이용 기간을 10월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베드와 카바나도 구비되어 있으며 호텔에 숙박하지 않아도 비

용만 지불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일반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투숙객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성수기(개장일로부터 8월 18일까지)에는 총 3부로 운영된다.

1부는 오전 8시부터 오전 11시, 2부는 3시부터 6시, 3부는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가격은 1인 성인 3만2000원, 소인 1만9000원이다. (세금 포함).

호텔 투숙객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인피니티풀 입장료 할인 행사도 31일까지 진행된다.

/익산=장인천 기자

## 군산, 전국 최고 해양스포츠 메카 자리매김

### 시 일대서 20여개 종목 개최... 선수·관광객 등 20만여 명 참가 예상

자립도시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전국 최고의 해양스포츠 메카로 자리 잡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부 공모사업으로 유치에 성공한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통해 서해안 해양스포츠 메카도시로 발돋움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에서 개최되는 내년 제전은 정식종목 4종목을 포함해 번외, 체험, 해양행사 등 20여개 종목이 선유도, 비응항, 은파호수공원 등 군산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선수, 관광객

등 20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군산시는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7월 중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북도와 제전 준비단을 꾸려 체계적인 제전을 준비해, 수려한 자연경관을 간직한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광역 해양레저체험단지 조성 등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과 함께 2020년 해양스포츠제전을 계기로 군산을 '서해안 해양 레저관광 메카'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기 항만해양과장은 "2020년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고군산에서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대회가

개최된다"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지금부터 군산제전 홍보, 대외기관 협력, 기반시설 확충 등을 미리 준비하여 성공적인 제전 개최로 군산시를 전국 해양레저스포츠 1번지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해양수산부가 해양 스포츠의 활성화를 통해 해양 스포츠 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친해양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해양 스포츠제전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여성회관 교육생 모집

익산시 여성회관에서 하반기 교육생을 이달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익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개설강좌는 4개 과정 총 36과목이며 분야별로는 ▲자격증취득과정(11개), I T Q(역셀), 실버인공지능전문가, 바리스타 2급(주·야간반), 꽃차소믈리에 등 ▲취미·교양과정(10개) 화목한 남자요리, 약선요리, 프랑스자수, 천연발효식초, 홈패션과 리폼(주·야간반) 등 ▲전통·문화 과정(9개) 서예, 왕초보 기타교실, 우쿨렐레, 한국무용 등 ▲여성복지·건강과정(6개) 다이어트댄스, 국산도, 요가, 실버댄스(초급, 중급), 볼름댄스 등이다.

특히 직장인들에게도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바리스타 2급 야간반 강좌를 신설했고 양성이 조화로운 여성가정특화도시 조성을 위해 가구 DIY지도사, 정리수납전문가, 디지털떡, 화목한 남자요리, 천연발효식초, 왕초보 기타교실 등 10개 강좌는 남성들에게도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반기 교육과정은 8월 26일 개강해 12월 13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며 수강료는 강좌별 교육기간에 따라 3~4만원(1만원/1개월 4주 기준)이고 교재비와 재료비는 별도이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1과목에 한해 수강료가 면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홈페이지(http://www.iksan.go.kr)를 참조하거나 여성회관 ☎859-4986~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인천 기자

## 군산시 수협, 전라북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출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어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어업 창업에 관한 컨설팅과 교육 및 홍보를 전담해주는 전라북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가 본격 출범했다.

지난 17일 군산시 수협 5층에 문을 연 전라북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출범식은 김종남 군산시수협 조합장을 비롯해 박정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서재희 전라북도해양수산정책과과장, 군산시관계자, 나진호(사)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장, 어촌계 임원, 군산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라북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는 군산, 김제, 부안, 고창 등 도내 어촌 지역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대한 상담 및 교육·홍보 등을 전담하게 된다.

김종남 군산시수협조합장은 "전북 지역의 어촌으로 어업창업을 위해 새로운 도시민들이 들어온다면 좀 더 어촌이 활성화 되리라고 본다"며 "귀

어귀촌종합지원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귀어귀촌 정책지원 대상자는 어촌지역 외에 거주하는 도시민이 어업인이 되기 위해 어촌으로 전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어업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3억까지 융자 지원한다.

자격요건은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어촌으로 이주하여 5년 이내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희망하는 사람, 최근 5년 이내에 귀어귀촌교육(5일 이상 또는 35시간)이수한 사람 등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 중소기업 우수인력 장기근속 지원

### 시·중진공, 익산형 내일채움공제 사업 업무협약 체결

익산시는 중소기업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익산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현태 중진공 부이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사업 협약 체결 후 관내 중소기업 지원에 뜻을 모았다.

익산형 내일채움공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 공제에 가입하면 근로자가 부담금 10만원을, 기업이 부담금 24만원을 5년간 공동 적립한 후 만기 시 근로자가 공제금과 이자를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원받는 사업으로 이 가운데 익산시는 기업부담금 50%(12만 원)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제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은 부담금에 대해 손비(비용)를 인정받고 세액공제 25%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5년 만기 시 600만원을 납입하면 복리이자를 더해 2,000만 원 이상의 성과보상금 받고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 상당을 감면 받게 된다.

익산시는 이번 사업 대상 근로자를 7월 중 공고해 선착순 5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을 통해 직무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대표 이영근**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